

## 민족의 확대, 재외동포 교육

사범대학 교육학과 명예교수 김 신 일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국인은 약 7천만 명이고 세계 이곳저곳에 퍼져 있는 한인동포는 약 7백만 명으로, 민족의 약 10분의 1이 해외에 살고 있다. 해외 동포 수는 계속 증가 추세이다. 지역별로는 중국에 약 240만 명, 미국에 약 200만 명, 일본에 약 90만 명, 유럽에 약 65만 명, 캐나다와 러시아에 각 20만 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 퍼져 살고 있다. 생각해 보면 재외동포는 한민족의 엄청난 자산이요 힘이다.

그러나 과거의 교육정책은 영토 내의 국민을 대상으로 삼았고,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위한 교육에 대하여는 관심이 전무 하다시피 했다. 외국거주 한인동포들은 스스로 이주한 이민자뿐만이 아니다. 19세기 말에서 해방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추방당한 사람들, 또는 탄압을 피하거나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만주, 러시아 등으로 흩어진 유민과 그 자손들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들에 대한 국내의 시각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분위기였으므로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은 정책적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한국정부가 재외국민의 교육에 정책적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이고, 본격적 정책 수립과 시행은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 재외동포들이 현지에서 차세대의 한민족 정체성교육의 필요를 강하게 느끼면서 고국 정부에 지원 대책을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 이 무렵이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미국, 중국, 일본, 구 소련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한민족교육이 관심을 끌기 시작한다.

재외동포를 위하여 한국정부가 관장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교육정책은 네 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재외동포 학생 모국수학 및 교사연수를 말한다. 그러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재외 한민족 교육은 아직도 열악한 상태에 있다. 교육시설, 교사의 확보와 연수, 교재, 교구, 교육과정개발 등 어느 것 하나 충분한 것이 없다. 한국정부와 국내외 동포교육단체들이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이다.

재외동포교육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하려는 사업이다. 하나는 재외동포들을 2세, 3세 까지도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교육함으로써 민족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다. 세계화시대에는 국경과 국적은 그 의미가 점점 약해진다. 민족문화를 얼마나 잘 발전시키고 그 공간을 확대시키는가, 그리고 얼마나 뚜렷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

재외동포의 한민족정체성 교육이 성공하는 만치 한민족의 영향력이 확대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스라엘민족이 좋은 예이다.

아울러 개인의 정체성 발달과정에서 청소년기의 정체성위기를 잘 넘기기 위해서는 아동기부터 분명한 정체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은 성장과정에서 누구나 청소년기에 정체성위기를 통과한다. 이때에 자신이 속해있는 원초적 귀속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의식을 잘 형성해 가지고 있느냐 여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문화적 정체성을 확고하게 형성하지 못한 상태로 사회적 곤경에 부딪치면, 갑자기 뿌리 뽑힌 나무처럼 인생 전체의 기초를 상실할 수 있다. 해외 차세대의 민족정체성교육이 요청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새로운 나라에서 이민족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그 나라 국민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문화와 제도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 모범적 국민이 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뿌리인 한국민족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의식을 가지고 주류집단 및 주류문화와 당당하게 대할 때 오히려 그 쪽으로 부터 존중받게 된다. 그러므로 미국의 경우라면 ‘한국계 미국인’ 즉 코리언 아메리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돕는 데에 해외 차세대 교육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해외 한민족의 민족정체성교육에 관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 절대로 간과해서 안 될 것이 있다. 그들이 한국국민이 아니라 거주국의 국민 또는 시민이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차세대는 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국민이 아니라, ‘한국계 미국인’(Korean American) 즉 미국국민이다. 중국에 살고 있는 동포, 다시 말해서 그 나라에서 부르는 명칭으로 ‘조선족(朝鮮族)은 ‘한국계 중국국민’이다. 그러므로 해외동포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거주국의 국민으로 그 사회에서 경쟁하고,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면서 살아간다. 그들은 현지의 국적을 지니고 있는 그 나라 국민이다. 따라서 해외 차세대를 위한 민족교육의 목표는 그들이 거주국에서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의 국익을 위한 ‘한국국민’이 되도록 가르치는 데에 목적을 두는 것은 단견이다. 그 나라의 한인사회를 본국이 지배하려 들거나 파괴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한민족의 피를 나눈 한인으로서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그 나라의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 점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일견 모순 같지만 미국, 중국, 유럽 각국의 국민으로서 성공하는 데에는 개성 있는 민족문화를 소유하고 있느냐가 큰 도움이 된다. 미국시민으로 성공하는 데에는 영어와 함께 한국어 구사능력이 큰 도움이 되고, 한국과 동양의 문화에 관한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재외 한민족교육 대상에 앞으로 포함시켜야 할 집단이 입양아집단과 나아가 한인혼혈집단이다. 숫자를 정확히 제시할 수는 없으나 한국인 입양자녀에게 한국문화경험을 주려는 입양부모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식수준이 높은 입양부모일수록 그러한 요구가 많은데, 그것은 입양아가 민족적 정체 의식이 잘 형성되어 있을수록 청소년기의 정체 의식 위기를 잘 넘기고, 그 후에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원만하게 성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려서부터 백인사회에서, 스스로 백인인줄로 착각하고 자라다가 청소년기에 이르러 갑자기 백인집단 또는 주류집단으로부터 소외당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 충격으로 부모와 가정 그리고 사회에 대하여 공격적으로 변하고, 자기 파괴적 행동을 하는 예가 매우 많다.

재외동포교육에서 마지막으로 특히 강조할 점은 자라나는 새로운 청소년세대 교육도 중요하지만 기성세대의 교육 또한 절실하고, 어느 면에서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차세대를 위한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대상을 아동과 청소년에 한정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부모를 비롯한 성인세대 까지 대상으로 삼는 ‘전세대교육’(全世代教育)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흔히 교육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어른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가르치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학습은 모방과 강화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즉 어른들이 하는 행동과 학습활동을 보고 따라 배운다. 특히 민족정체성교육처럼 가치관, 태도, 행동양식의 학습은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사실은 부모와 성인세대에 대한 민족 정체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구상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까지 국내의 학교교육에서 민족문화 교육을 매우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해외동포의 기성세대, 특히 해방 후 교육세대의 민족문화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대단히 낮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내의 학교교육과정을 최근에 와서 조금씩이나마 국악, 한국화, 동양사상 등을 포함하는 경향이지만, 해방 후부터 1980년대 사이에 학교에 다닌 사람들은 한국문화에 관하여 배운 것이 거의 없다. 서양 폴룩은 알아도 우리의 대금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모르고, 모짜르트의 피아노곡은 아는 척이라도 하지만, ‘상령산’이나 ‘수제천’은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 역사교과에서 배운 것은 식민사관에 오염된 내용이었으므로, 예컨대 군주제도 하에서의 민주적 정치운영방식에 관하여는 배우지 못했고, 조선시대의 정치는 오로지 “당파싸움”이었다고만 배웠다. 그러므로 기성세대는 잘 모르면서 차세대에게만 새로운 민족문화와 민족정체 의식을 교육한다는 것은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